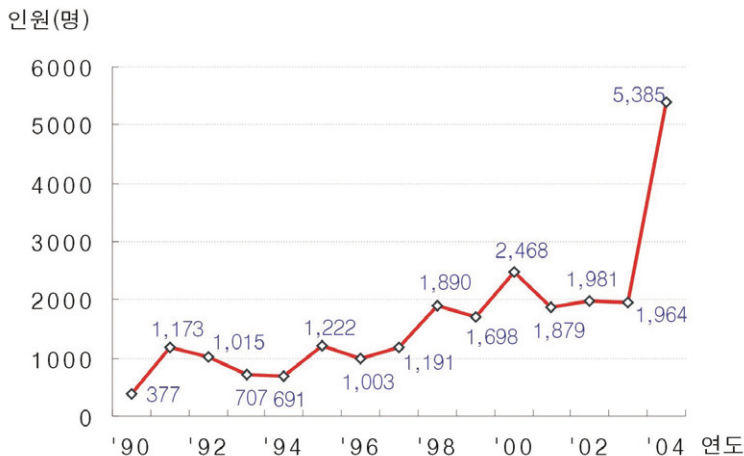


## 2. 북한주민 접촉

북한주민 접촉은 주로 이산가족들의 재북 가족과의 서신교환, 기업인들의 교역 투자상담, 학자 종교인들의 제3국 개최 공동행사 참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도 북한주민접촉은 5,385명으로 전년도 1,964명에 비해 174.1% 증가하였다.

【 연도별 북한주민접촉 변화추이 】



2004년도 분야별 북한주민 접촉은 경제분야 852건(973명), 사회문화분야 174건(2,145명), 대북지원 66건(224명), 이산가족 205건(230명), 기타 48건(1,793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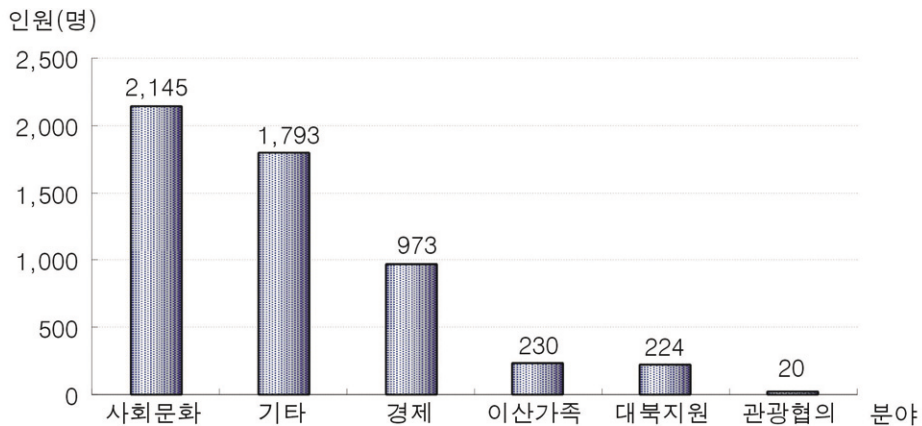
경제분야의 2004년 북한주민접촉은 582건(973명)으로 전년도 411건(534명)에 비해 82.2% 증가하였다.

사회문화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2004년도 학술분야의 북한주민 접촉 성사인원은 1,620명으로 전년도의 263명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 체육분야는 151명으로 지난해의 31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문화·예술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157명으로 전년도의 33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2004년도 문화·예술분야 주요 접촉사례로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북한영화 상영 추진, 국립오페라단 평양공연 추진, 윤도현밴드 조총련 공연 추진,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추진, 남북합동 수석전시회 개최 등이 있다.

### 【 2004년 분야별 북한주민 접촉현황 】



종교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15건(71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종교분야 주요 접촉사례로는 남북간 기독교교류 및 선교 협력방안 협의, 조총련계 조선학생 초청사업 추진, 제3회 통일염원 순례행사 참가 등을 들 수 있다.

언론·출판분야 북한주민접촉은 44건(11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4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남북공동 방송물 제작 등 남북방송교류 추진, 북한저작물 국내 출간 추진, 금강산·개성지역 현장 취재 등 방북취재와 언론출판교류 협의, 조총련대상 도서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과학·환경분야는 2004년도 6건(35명)이 성사되어 전년도 61명에 비해 74.2% 감소하였다.

2004년도 주요 접촉사례로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협력사업 진행과정에서 UN 후원 동남아 개도국 대상 공공정보 워크샵(2004.11) 등을 들 수 있다. 환경분야 관련 주요접촉사례로는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평화의 숲」의 양묘장 건설

사업, 「남북강원도협력협회」의 산림 병충해(솔잎혹파리, 잣나무넓적잎벌레)방제 사업 등과 관련된 접촉이 이루어졌다.

## 제2절 남북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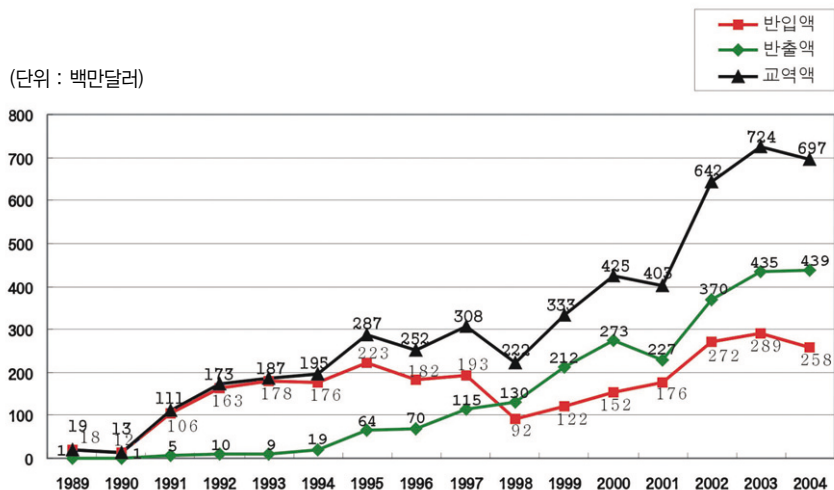
### 1. 남북간 물자교역

#### 가. 교역규모

2004년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의 본격적인 개발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 용천재해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에 따라 비거래성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거래성 교역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6억 9,704만달러에 머물렀다.

반입은 2억 5,804만달러로 전년보다 10.8% 감소하였으나 반출은 4억 3,900만달러로 전년보다 0.9% 증가하였다. 반입 감소는 주로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일부 농수산물물의 한도물량 설정 및 국내 내수부진 등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의 축소 등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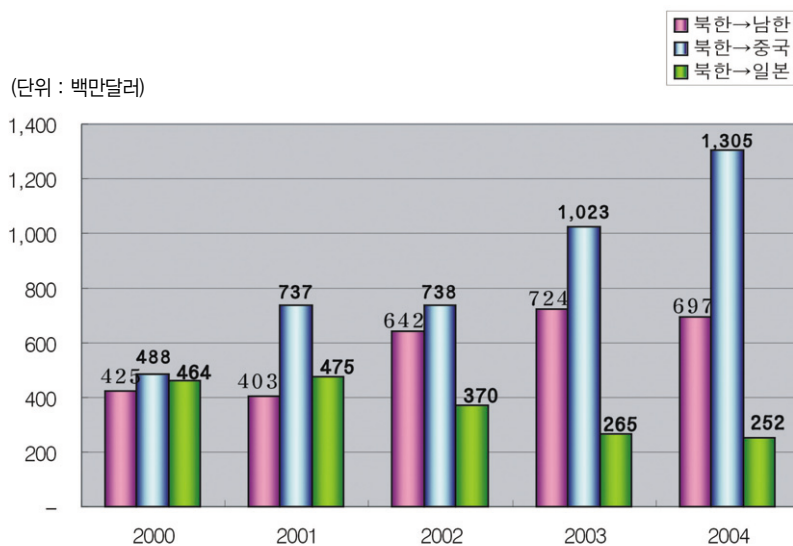
【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 추이 】



2004년 북한의 주요국가와의 교역현황을 보면 중국과의 교역이 35.4% 증가된

13억 8,521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과의 교역은 2억 5,187만달러로 전년 대비 4.8% 감소되었다.

### 【 북한 3대 교역국 교역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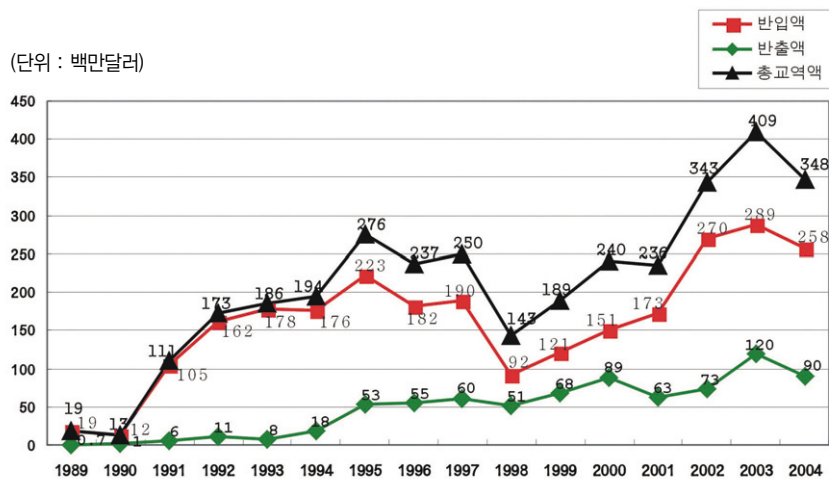
남포항에서 하역작업중인 TRADE FORTUNE호

## 나. 유형별 남북교역

2004년도 거래성 교역(상업적 매매거래, 위탁가공)은 3억 4,779만달러로 전년대비 14.9% 감소하였고, 전체 교역액의 49.9%를 차지하였다. 이중 반입은 2억 5,790만달러로 전년대비 10.8%, 반출도 8,989만달러로 24.8% 각각 감소하였다.

거래성 교역중 상업적 매매거래는 1억 7,179만달러로 전년대비 23.2% 감소하여 전체 교역액의 24.6%, 거래성 교역의 49.4%를 차지하였고, 위탁가공 교역은 1억 7,600만달러로 전년대비 4.9% 감소하여 전체 교역액의 25.3%, 거래성 교역액의 50.6%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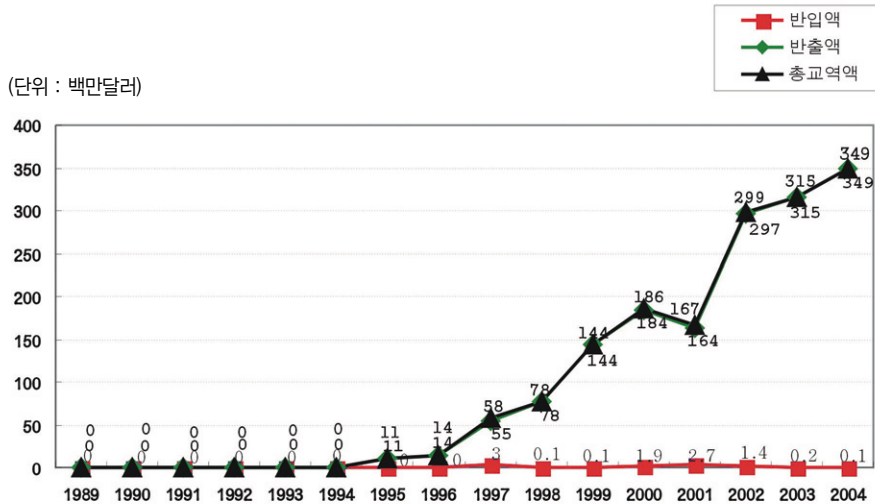
### 【 거래성 교역 변동 추이 】



한편 비거래성 교역은 3억 4,924만달러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고, 전체 교역액의 50.1%를 차지하였다.

주요 유형별로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2억 5,847만달러로 비거래성 교역액의 7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건설 등 일반 협력사업 4,855만달러, 금강산 관광사업 4,177만달러, 경수로 사업 46만달러로 각각 비거래성 교역액의 13.9%, 12.0%, 0.1%를 차지하고 있다.

## 【 비거래성 거래 교역 변동 추이 】



### 다. 남북간 교역수지

2004년도 교역 수지는 명목상으로는 남한이 1억 8,096만달러 흑자이나 비거래성 반출입을 제외한 실질교역 수지는 1억 6,801만달러 적자이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 명목 수지는 남한이 2억 3,500만달러 적자이나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누적 실질 수지는 이보다 훨씬 적자 폭이 큰 18억 4,467만달러이다.

명목상으로는 남한이 흑자이나 실질 교역수지는 적자를 보이는 교역수지 구조는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물자반출의 증가, 대북 지원 물품 증가 등으로 비거래성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실질 교역수지의 불균형은 주로 북한의 구매력 부족 때문으로 북한의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남북간에 합의된 청산결제제도가 시행될 경우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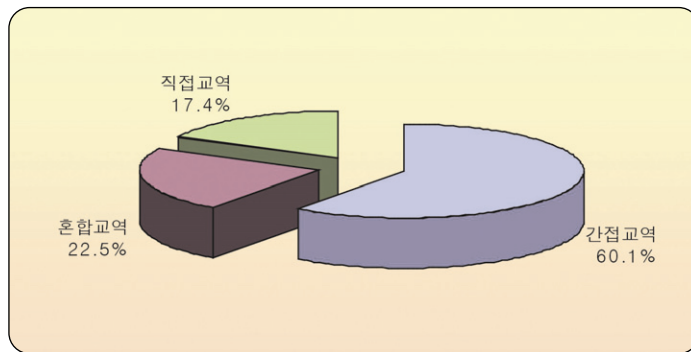
## 라. 남북한 교역구조

남북교역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교역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교역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 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부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003년 9월 300여개의 남북교역업체를 대상으로 교역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교역 당사자간 직접 계약에 의한 직접교역 업체수의 비율은 17.4%인 반면,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은 60.1%, 직접교역과 간접교역 방식을 병행하는 혼합교역은 22.5%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 직교역 확대 등을 위한 경험협회사무소 개설, 기 합의된 청산결제 제도의 시행 등과 같은 직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간 직교역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북교역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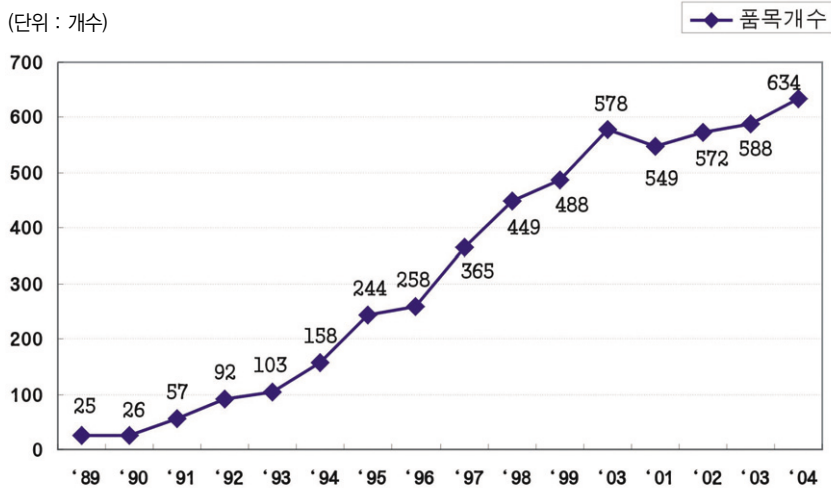


▶ 업체수 기준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572개, 2003년 588개, 2004년 634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4년의 경우 반입 품목수는 202개로 전년에 비해 17개 증가한 반면, 반출 품목수는 575개로 45개 증가하였다.



## 【 연도별 교역품목 현황 】



반입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농림수산물, 섬유제품, 철강·금속제품 등 순이다. 2004년 농림수산물 반입은 전년보다 감소된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개류·건조수산물·수산가공품 등 수산물이 주종을 이룬다

섬유제품은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높아져 반입품목중 두번째로 큰 비중(37.2%)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섬유류 위탁가공교역의 위축으로 반입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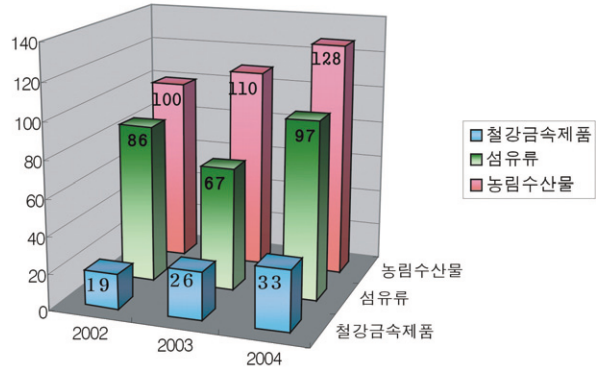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은 2004년 반입 비중이 20.1%로 세번째이며, 교역 초기에 금괴 등 광산물과 선철 등이 아연괴와 함께 반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아연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았으나, 위탁가공교역의 시작과 함께 섬유류의 반출 비중이 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식량·비료, 의약품 지원 등으로 인해 화학공업제품과 농림수산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주요 반출품목의 비중은 화학공업제품(31.0%), 섬유류(20.4%), 광산물(6.6%), 농림수산물(15.2%), 기계류 9.8%, 철강금속제품(4.9%)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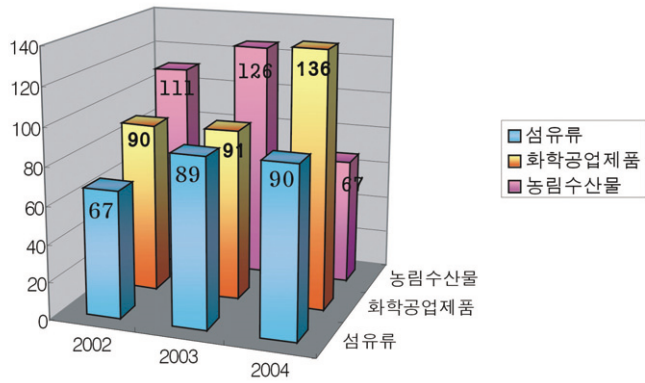
## 【 최근 3년간 주요 반입품목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 최근 3년간 주요 반출품목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2. 위탁가공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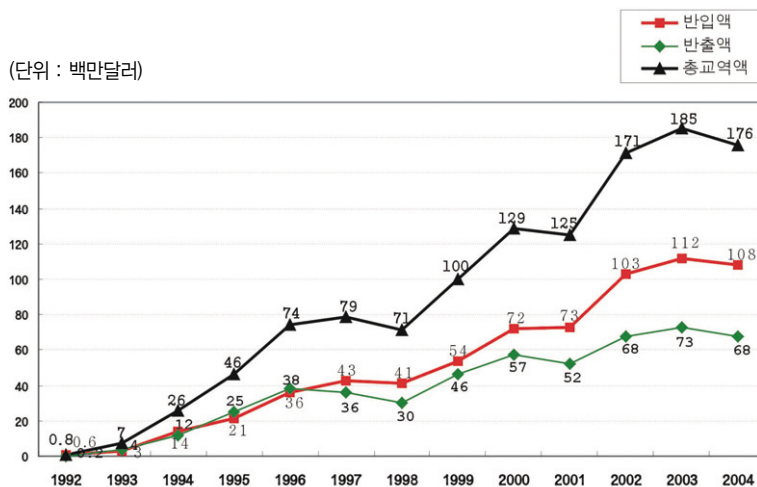
위탁가공 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국내에 가공제품을 재반입하고 북한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가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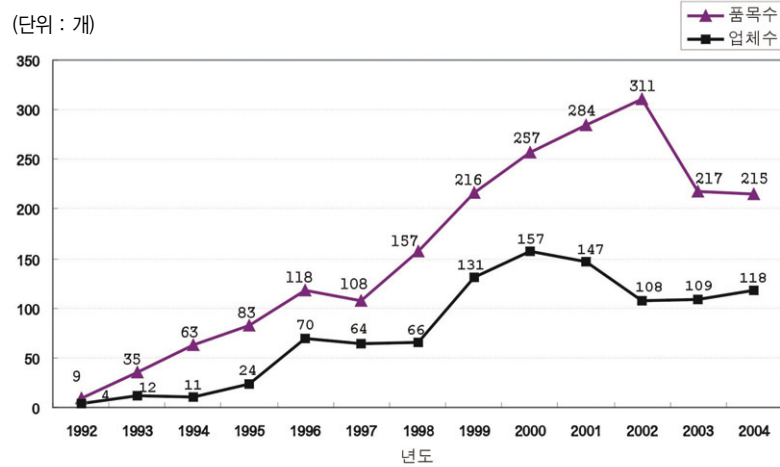
(주)아이에스월드의 북한 위탁가공공장인 모란봉 피복공장

을 지급하는 교역 형태이다. 2004년도 위탁가공 교역액은 1억 7,600만달러로 전년대비 4.9% 감소하였다. 위탁가공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25.3%, 거래성 교역액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섬유류 위탁가공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TV 등 전기·전자 제품과 일부 생활용품등도 위탁가공으로 생산되어 반입되고 있다.

### 【 연도별 위탁가공교역 추이 】



### 【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및 품목 현황 】



2004년의 위탁가공 교역 참여업체수는 118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점차 안정 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0년 157개 업체에서 2002년 108개 업체로 급격한 감소경향을 나타낸바 있는데, 이 시기는 2000년 본격적인 남북교역 관심제고로 많은 업체들이 위탁교역에 참여하였지만 반출입교역액 5만달러 이하의 영세업체들은 사업성 조율에 실패하였고 규모있는 업체가 교역을 주도하여 품목수와 교역액이 대폭 증가하는 등 위탁가공 교역의 재편기라고 볼 수 있다.

## 제3절 남북간 통행 · 통신 · 통항

### 1. 통행

#### 가. 남북 육로출입의 제도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29~3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 및 특사방북(2002.4.3~4.5)을 통해서 남과 북은 남북철도 · 도로 연결에 합의하였다. 뒤이어 개최된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회의(2002.9.13~17, 금강산)에서 철도 ·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 · 장비를 우리측에서 제공키로 함으로써 반세기 동안 끊어져 있던 남북철도 · 도로 연결을 위한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었다.

남북철도 ·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 · 장비의 운반이 빈번해지고 금강산육로관광이 본격화됨으로써 남북출입업무를 관할하는 상시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2월부터 임시 출입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1월 20일자로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남북출입사무소 직제를 신설하여 남북출입업무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철도 · 도로의 운영, 남북 차량 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남북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 남북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및 물자의 반출 · 반입 승인 신청서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를 통한 남북사이의 인원 왕래, 물자의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시 세관검사(Customs Inspection), 출입심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등 남북 출입절차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간 합의에 의한 상호주의 적용문제 해결과 남북출입계획 작성 · 조정 등 남북 출입업무를 총괄 · 조정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남북 통행량 증가에 대비한 물적 기반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북 협상업무 등도 수행한다.



남북 출입사무소 내부

한편 남북출입과 관련 신속·정확한 통계유지와 출입심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보완·연동하여 통행 인원, 차량 및 물자에 대한 출입현황 DB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관세청 및 법무부 전산시스템과 연계하고 북한 방문 중에 바코드를 장착함으로써 출

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실시간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출입경 자동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나. 남북 육로출입 현황

남과 북은 2003년 1월 27일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서명·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관광,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자재·장비 수송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남북회담,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 교류협력, 인도적 사업 등을 위한 인원과 차량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는 개성공단 개발사업,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 사천강 모래 반입 등과 관련 자재·장비 수송과 물자의 반출·입이 육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4년 12월 15일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제품이 남북출입사무소의 통관절차를 거쳐 남한으로 반입되었다.

남북 육로출입 현황은 2003년도에는 금강산 관광객 36,028명을 포함하여 43,038명(경의선 3,643명, 동해선 39,395명)의 인원과 4,392대의 차량이 육로를 이용하여 남북을 왕래하였다.

2004년도에는 통행인원이 금강산 관광객 268,420명을 포함하여 321,088명(경의선 24,164명, 동해선 296,924명)에 달해 대략 월 26,700여명, 매일 890여명이 남북

을 왕래하였으며, 차량은 30,899대로 월 2,500여대, 매일 80여대가 왕래하였다.

이러한 통행 숫자는 남측 인원·차량이 경의선·동해선을 통해서 왕래한 편도 기준 현황이다. 북측 인사·차량이 남측으로 내려온 경우는 인원 80명, 차량 12대로 3차례에 걸친 속초·문산에서의 남북회담 참석을 위해서였다.

### 【 육로이용 출입 현황 】

구 분	통행인원(명)			통행차량(대)		
	경의선	동해선	계	경의선	동해선	계
2003년	3,643	39,395	43,038	1,249	3,143	4,392
2004년	24,164	296,924	321,088	15,314	15,585	30,899
남북회담	279	85	364	22	11	33
경제협력	23,571	293,462	317,033	15,168	15,174	30,342
사회문화교류협력	262	1,476	1,738	117	134	251
대북인도사업	52	1,901	1,953	7	266	273
합 계	27,807	336,319	364,126	16,563	18,728	35,291

#### 다. 남북출입시설 신축 공사 추진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대비하여 남북출입사무소가 출범하고 육로를 통한 인원 및 물자의 남북 통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남북출입시설 신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남북출입시설 건설은 남북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물류 확대 및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효과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남북출입시설 신축사업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총사업비 2,781억원(경의선 1,652억원, 동해선 1,129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심의·의결되었다.



경의선 철도·도로출입시설 착공식

남북출입시설은 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고객편의 중심의 공간배치 및 부대시설 확보,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2004년 9월23일 경의선지역 본출입시설 건물 착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라산 지역에 약 13만평, 동해

선 저진역 부근에 약 12만평 정도의 대규모 철도·도로 출입시설 단지가 형성된다. 본출입시설은 2005년 12월, 기타 부대시설 및 공용 야드는 2006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 【 남북출입시설 신축규모 및 공사기간 】

구 분		연 면 적	부 지 면 적	공 사 기 간
경의선	철도출입시설	6,500m <sup>2</sup> (1,966평)	440,910m <sup>2</sup> (133,375평)	'04.9 ~ '05.12
	도로출입시설	17,438m <sup>2</sup> (5,275평)		'04.9 ~ '05.12
	공용Yard	395,700m <sup>2</sup> (119,698평)		'05 ~ '06.12
동해선	철도출입시설	6,706m <sup>2</sup> (2,029평)	411,170m <sup>2</sup> (124,378평)	'04.9 ~ '05.12
	도로출입시설	8,354m <sup>2</sup> (2,527평)		'04.9 ~ '05.12
	공용Yard	306,950m <sup>2</sup> (92,852평)		'05 ~ '06.12

## 2. 통신

남북간 통신망은 2004년에 개성공단 추진을 위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용 2회선이 위성을 통해 간접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2004년 말 현재 직접 33회선, 간접 33회선 등 총 66회선이 연결되어 있다.

2004년에 개성공단과의 직통 광통신이 합의됨에 따라 직통 광통신 시대를 맞이



하게 되어 향상된 통화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을 위하여 50회선을 추가 구축하여 관광객의 통신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의 신포 경수로 부지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중국을 경유하는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 남북간 직접연결 전화 현황 】

(2004.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 선 수	연 결 시 기
남북직접시간직통전화	서울~평양	2	1971.9.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1972.7.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1972.8.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1984.12.21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 남북직통전화	남북직접자회담연락사무소간	2	1971.9.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1992.5.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판문점경유)	2	1997.11.19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1998.2.17
남북군당국간 직통전화 (철도·도로 연결공사용)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상황실간	2	2002.9.24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상황실간	2	2003.12.5
합 계		33	

### 3. 통항

2004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2,124회로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은 946회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1,178회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또한, 남북간에는 물자 및 인원 수송을 위해 인천~남포, 부산~나진, 속초~양화간에 정기선이 운항중이다.

남북간 안정적 해상운송체계를 마련하고 해운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